

	문화재청 50년,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		
報道資料 [2011.12.23.]	보도시점	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
	담당부서 (전화번호)	보존정책과/유형문화재과 (042-481-4841/ 4917)	
	담당자 (e-mail)	차금용(chaky56@ocp.go.kr) 나명하(naha@ocp.go.kr)	문화재청 50주년 50th Anniversary of CHA
「문화재청(www.cha.go.kr) 새소식,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(www.korea.kr) 정책정보」에 동시게재			

「서울 살곶이 다리」 등 사적 3건 보물 지정

문화재청(청장 김 찬)은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 수렴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성격상 사적보다는 건조물(유형문화재)로서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재평가한, ‘서울 살곶이 다리(서울 [箭串橋], 변경 전 사적 제160호)’, ‘창녕 영산 석빙고(昌寧 靈山 石氷庫, 변경 전 사적 제169호)’와 ‘서울 관상감 관천대(서울 觀象監 觀天臺, 변경 전 사적 제296호)’ 등 국가지정문화재 3건을 사적에서 보물로 변경 지정한다.(지정예고 ‘11.11.11)

‘서울 살곶이 다리’(보물 제1738호)는 조선 성종 13년(1483) 왕십리와 뚝섬 사이의 중랑천을 가로질러 건립된, 조선시대 석교 중 가장 규모가 큰 장식판교(長石板橋)다. 좌우 교안(橋岸)을 장대석으로 쌓고 네모난 돌기둥 교각을 횡으로 4열, 종으로 21열, 모두 84개의 돌기둥으로 쌓은 폭 6m, 길이 76.2m, 높이 3m의 돌다리이나, 현재는 보행로 설치로 서북쪽 일부분이 매몰되어 약 69.2m이다.

‘창녕 영산 석빙고’(보물 제1739호)는 영취산(靈鷲山)을 마주하고 뒤로는 작은 개천이 흐르던 곳에, 18세기 후반 창녕 석빙고(보물 제310호, 1742년 축조) 보다 약 10~15년 후에 당시 현감이었던 윤이일(尹彝逸)이 축조했다고 한다. 빙실(氷室)은 남북으로 긴 장방형인데, 규모는 43.56㎡(4.4m×9.9m)로 현존 석빙고 중 가장 작은 편이다.

‘서울 관상감 관천대’(보물 제1740호)는 세종 16년(1434)에 서운관에 소간의라는 천체관측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축조한 관측대로서, 원래 명칭은 소간의대(小簡儀臺)다. 규모는 높이 4.2m, 가로 2.8m, 세로 2.5m 화강석대이며, 현재 세계적으로 몇 개 남아있지 않은 고천문 시설의 하나로 역사적, 학술적,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과학 문화재다.

국가지정문화재(보물) 변경 지정 세부내용

1. 서울 살곶이 다리

- 지정 종별 및 번호 : 보물 제1738호
- 문화재명 : 서울 살곶이 다리(서울 [箭串橋])
- 소재지 : 서울 성동구 행당동 58
- 문화재 면적 : 24필지 10,232㎡(지정구역)
- 관리단체 : 성동구
- 변경내용 : 사적(제160호) 해제 및 보물(제1738호) 지정
 -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를 사적에서 보물로 변경 지정하되 지정구역, 관리 단체 및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등은 종전에 고시·운영된 내용 그대로 적용함
- 변경사유
 - 석교문화재가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사적 지정요건인 인물,역사, 사건 등을 고려해볼 때 사적보다는 유형문화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적을 해제하고 보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함

2. 창녕 영산 석빙고

- 지정 종별 및 번호 : 보물 제1739호
- 문화재명 : 창녕 영산 석빙고(昌寧 靈山 石氷庫)
- 소재지 :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교리 산10-2
- 문화재 면적 : 28필지 13,243㎡(지정구역 3,504㎡, 보호구역 9,739㎡)
- 관리단체 : 창녕군
- 변경내용 : 사적(제169호) 해제 및 보물(제1739호) 지정
 -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를 사적에서 보물로 변경 지정하되 지정구역, 관리 단체 및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등은 종전에 고시·운영된 내용 그대로 적용함

○ 변경사유

- 창녕 영산 석빙고를 제외한 모든 석빙고가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, 다른 석빙고와 달리 이 문화재만 사적으로 지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사적을 해제하고 보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함

3. 서울 관상감 관천대

○ 지정 종별 및 번호 : 보물 제1740호

○ 문화재명 : 서울 관상감 관천대(서울 觀象監 觀天臺)

○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원서동 206

○ 문화재 면적 : 1필지 524㎡(지정구역 179㎡, 보호구역 345㎡)

○ 관리단체 : 종로구

○ 변경내용 : 사적(제296호) 해제 및 보물(제1740호) 지정

-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를 사적에서 보물로 변경 지정하되 지정구역, 관리단체 및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등은 종전에 고시·운영된 내용 그대로 적용함

○ 변경사유

- 유사 사례인 창경궁 소재 관천대 등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적을 해제하고 보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함

【관련 사진】



서울 살곶이 다리



서울 살곶이 다리(보물 제1738호)



창녕 영산 석빙고(보물 제1739호)



서울 관상감 관천대(보물 제1740호)